

아무도 몰랐던 **물래발명**이야기

장남장수에서도 어능이 기리고
노는 장남장이 있으면...
기리고 노면 노수를 기쁨이 어는
이 장남장은 무엇일까?



1985년 승강기회 부다중이론에서 제기된
주박은 대칭급에서 준간을 공부하였다
그때부터 주박은 평은 시위적적인 모양을
좋아했다



하지만, 고무줄이 너무 약해서 쉽게 끊어져
버렸다.



그것은 5여 인의 두뇌활동이라
불과했던 '주박의 쿠키'이다.



여호라의 이근 발, 주박은 딸의
너무복음을 알아보고 간음들을 고무줄은
뭉어 서로 연결시킨후 한적에는
몸은색을 칭했다. 그후에...



조각과 공리를 공부한 주박은
공 다른 연결성법을 찾아냈다.

줄-물류물을 지리서으로 함께 모아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느
방향을으로의 돌연속 있게 하면
되는데...



후백은 곧 정성을 들여 각종 불독들을
잡아 만들고 한평생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불독이 각마다 사뭇 다른 색의
접착층기를 붙였다.



후백은 완성된 큐브를 들고 정신한
의자에 앉아서 큐브를 비틀어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후 후백은 난감해졌다.



하지만 후백은 포기하지 않고
여침난 큐브를 되돌리는 법을
찾아내는 노력 끝에 발명품을
발견했다.



후백은 1955년 1월에 큐브에 대한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이때 재미있는 에피소드
가 있는데 비슷한시기에 큐브와 비슷한
장난감을 만들어낸 발명가가 있었다.



기찌되었든 후백은 큐브의 특허청에
근근을 받게 되었으며 큐브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지능개발용 장난감이
된 것이었다.

